Scan to PDF: Sign & Redact 리뷰: 까맣게 칠한 글자를 정말로 지우는 스캐너

가림 처리가 글자를 감추는 대신 삭제하는 무료 오프라인 스캐너. 베이츠 번호, AES-256 내보내기, PDF/A-2b 보관을 지원합니다.

작성자: Lubor Šimůnek · 게시일: September 27, 2026 · 생산성 · 평점: ★★★★★ 5/5
온라인 버전: https://appstoryo.com/ko/apps/scan-to-pdf-review-2026



Scan to PDF: Sign & Redact는 종이를 촬영하고 서식을 채워 서명하며, 가린 글자가 사각형 아래 숨는 대신 내보낸 PDF에서 아예 빠져나가도록 처리하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무료 문서 스캐너입니다. 2026년 7월 7일 공개된 2.0 버전은 베이츠 번호, AES-256 암호, PDF/A-2b 보관을 추가했고, 모든 처리는 기기 안에서 이뤄집니다.

공시: *AppStoryo*는 *Scan to PDF: Sign & Redact*를 개발하는 스튜디오가 운영합니다. 아래 비교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쓰고 실제 대안을 이름으로 언급합니다.

Scan to PDF는 휴대폰 카메라가 못 하는 무엇을 하나요?

카메라는 책상 위에 비스듬히 놓인 종이 사진을 줍니다. Scan to PDF는 네 모서리를 찾아 원근을 바로잡고, 색이 바랜 영수증을 대비 보정으로 정리하며, 하나의 PDF로 내보내기 전에 쪽 순서를 바꿉니다. 사진첩이 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서식을 채우고 서명하기, 글자 인식 돌리기,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닌 부분을 까맣게 지우기입니다.

iOS 버전은 97.2 MB이고 iOS 15.5 이상이 필요하며, macOS 12.4의 애플 M1 칩 맥에서도 돌아가고 앱 스토어에서 4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Scan to PDF는 App Store에서, Document Scanner PDF는 Google Play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위의 검은 사각형은 왜 가림 처리가 아닌가요?

PDF 안에서 사각형과 글자는 포개 놓인 별개의 객체이고, 그중 하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글자는 파일에 그

대로 남아 선택도 복사도 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 연방 지방법원은 통하지 않는 방법들을 열거하면서 이 방법을 제출 서류 안내의 거의 맨 앞에 둡니다. 아래는 영어 원문입니다.

> Edits made by graphic and "commenting" tools which can black-out, cover over or remove sections of text can still be removed by anyone to reveal the text underneath.

같은 쪽은 흰 글자색으로는 아무것도 감춰지지 않고 지운 문장도 메타데이터에 살아남는다고 경고합니다. 국가안보국도 2005년 12월 13일 Redacting with Confidence에서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워드 문서를 PDF로 바꿔도 모든 메타데이터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물한 해가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급여 명세서에 검은 상자를 그려 보냅니다.

Scan to PDF의 가림 처리는 정말로 글자를 지우나요 ?

Scan to PDF는 자기 동작을 내보낸 PDF에 구워 넣은 진짜 가림이며 떼어낼 수 있는 층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 주장이 이 앱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삼십 초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토어 문구이기도 합니다.

가린 쪽을 내보내고, 아무 뷰어로나 PDF를 연 뒤 전체 선택하고 복사해 메모 앱에 붙여 넣으세요. 가린 낱말이 나타나면 겉치레였던 것이고, 그 자리가 비어 돌아오면 글자는 사라진 것입니다. 쪽을 이미지로도 살펴보세요. 글자 층만 비우고 원본 사진을 아래에 남겨 두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스캐너든 이렇게 시험하세요. Scan to PDF는 App Store와 Google Play에 있습니다.

2.0 버전은 서류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더해 주었나요 ?

2.0에서 이 앱은 스캐너이기를 그만두고 서류 정리 도구가 됩니다. 변경 내역에는 모든 쪽에 붙는 베이츠 번호, 자동 생성 표지가 딸린 증거 라벨, 도장 모음, 서명된 PDF를 위한 감사 추적 쪽, Face ID 뒤에서 자기 인증서로 하는 서명, 내보내기 시 AES-256 암호, PDF/A-2b 보관 내보내기, 오프라인 글자 인식, 안전 삭제를 포함한 GDPR 데이터 내보내기가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설명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PDF/A-2b는 PDF의 보관용 형태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영구 보존 문서로 받아들이는 형식입니다. 같은 법원 쪽은 제출 PDF를 50 MB로 제한하는 체계에서 PDF/A 파일이 가장 적게 반려된다고 적습니다. 안전 삭제가 중요한 까닭은 지우는 것이 없애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며, NIST Special Publication 800-88이 바로 그 선을 긋습니다.

클라우드 스캐너와 견주면 Scan to PDF는 얼마나 사적인가요 ?

앱 스토어 개인정보 항목은 Scan to PDF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음이라고 표시합니다. 애플은 자사 문서에서 이 표시는 개발자가 신고한 것이며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감사 결과가 아니라 약속으로 읽어야 합니다. 구글 플레이 등록에는 광고도 인앱 결제도 없고, 글자 인식은 플랫폼의 기기 내 엔진을 씁니다.

이 대비는 의견이 아닙니다. 큰 스캐너들이 스스로 그렇게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Adobe Scan 등록은 스캔이 Adobe Document Cloud에 자동 저장된다고 하고, CamScanner 등록은 문서를 Dropbox와 Google Drive와 OneDrive에 올리라고 권합니다. 조직이라면 맞는 기능이고, 눈앞의 종이가 여권이나 급여 명세서라면 틀린 기능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스캐너를 써야 하나요 ?

이미 Acrobat 안에서 살고 있다면 Adobe Scan

- 등록에 따르면 스캔이 Adobe Document Cloud에 자동 저장되어 파일이 곧바로 노트북에 도착합니다.
- 앱 스토어 평가 1,589,094건에 평균 4.88이라는 기록은 새 앱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 대가는 묵직입니다. 397.8 MB, iOS 18.0 이상, 19개 언어, 강한 기능에는 구독이 필요합니다.

여러 곳으로 내보낸다면 Genius Scan

- 등록은 Box, Dropbox, Evernote, Expensify, Google Drive, OneDrive, FTP, WebDAV를 대상지로 적고 있습니다.
- 99.3 MB로 큰 스캐너 가운데 가장 가볍고 평가는 1,361,270건에 4.90입니다.
- 더하기 표시부터 읽으세요. 글자 추출과 검색 가능한 PDF는 유료이고 Genius Cloud 동기화는 별도 구독입니다.

가장 넓은 언어 지원이 필요하면 CamScanner

- 57개 언어, 평가 1,900,040건에 4.85이며 신분증과 여권 전용 모드가 있습니다.
- 회원제는 주 단위, 달 단위, 분기 단위, 해 단위로 청구됩니다.
- 클라우드 업로드가 작동 방식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문서가 남의 일이 아니라면 Scan to PDF

- 글자를 덮지 않고 지우는 가림 처리이며, 위 세 앱 가운데 어느 것도 이를 제품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 계정도 클라우드도 광고도 워터마크도 구독도 없고 용량은 97.2 MB입니다.
- 베이츠 번호, 증거 라벨, 내보내기 암호 AES-256, 그리고 보관만이 아니라 제출하는 서류를 위한 PDF/A-2b. 게다가 Adobe Scan이 이제 요구하는 iOS 18.0이 아니라 iOS 15.5에서 돌아갑니다.

Scan to PDF가 맞지 않는 때는 언제인가요 ?

스캔본을 여러 기기에서 써야 할 때입니다. 동기화도 클라우드 백업도 없습니다. 의도한 설계이지만 결과는 현실적입니다. 기기를 잃으면 서고도 함께 사라집니다. PDF 편집기도 아니어서 남이 작성한 문서의 본문을 고쳐 쓰지는 못합니다.

덧붙일 주의가 둘 더 있습니다. 앱은 앱 스토어 평가가 하나도 없고 구글 플레이 등록의 내려받기 수는 수십 단위입니다. 무엇이 고장 나는지 알려 줄 군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림은 선택한 만큼만 꼼꼼합니다. 7쪽 각주에 되풀이된 계좌번호는 1쪽만 표시했다면 살아남습니다. 문서를 끝까지 읽고, 가리고, 그다음 확인하세요. Scan to PDF는 App Store에서, Document Scanner PDF는 Google Play에서 받으세요.

Scan to PDF에 대해 사람들은 또 무엇을 묻나요 ?

Scan to PDF는 무료인가요, 구독이 있나요 ?

두 스토어 모두 무료이고 등록에는 인앱 결제도 광고도 없습니다. 체험판이 요금제로 바뀌지도, 결제로 내보내기 제한이 풀리지도, 워터마크가 찍히지도 않습니다. Adobe Scan과 Genius Scan과 CamScanner가 모두 자기 등록에 유료 계층을 적어 두는 분야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Scan to PDF는 인터넷 연결 없이 작동하나요 ?

작동합니다. 스캔, 원근 보정, 보정 필터, 서명, 가림, 글자 인식, 내보내기가 모두 기기에서 실행됩니다. 앱 스

토어 개인정보 항목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음이라고 적는 까닭입니다. 비행기 모드나 신호가 없는 법원에서도 동작은 같고, 나중에 동기화를 기다리는 것도 없습니다.

가림 처리가 정말 글자를 지웠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가린 PDF를 내보내고 아무 뷰어로나 열어 쪽의 글자를 모두 선택해 복사한 뒤 읽을 수 있는 곳에 붙여 넣으세요. 다시 나타난 낱말은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쪽을 이미지로 보고 원본 사진이 아래에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먼저 버려도 되는 문서로 시험하세요.

PDF/A-2b는 무엇이고 언제 써야 하나요 ?

PDF/A는 PDF의 보관용 규격입니다. 글꼴과 색 정보가 안에 박혀 있어 스무 해 뒤에도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바깥 자원에 기대는 것은 모두 금지됩니다. 2b 단계는 눈에 보이는 충실도를 맡습니다. 영구히 보관하는 것에 쓰세요. 국립문서기록관리청도 받아들입니다.

Scan to PDF는 내보낸 파일에 워터마크를 넣나요 ?

넣지 않습니다. 등록에는 어떤 것에도 결코 워터마크가 없으며 그것을 없애기 위한 유료 계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들리는 것보다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로지른 상표 하나면 상대가 서명 없이 문서를 돌려보내기에 충분합니다.

누가 보내 준 PDF에도 서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직접 스캔한 쪽만 되나요 ?

등록이 설명하는 것은 쪽을 스캔하고 채우고 손가락이나 자기 인증서로 서명한 뒤 내보내는 데까지입니다. 다른 곳에서 만든 PDF를 불러와 서명할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으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한이 있는 계약에 기대기 전에 앱 안에서 확인하세요.

베이츠 번호란 무엇이고 제게 필요한가요 ?

베이츠 번호는 한 벌의 문서 각 쪽에 고유한 일련 표식을 찍어, 변호사와 감사인과 보험사가 수천 쪽 가운데 한 쪽을 헷갈림 없이 가리킬 수 있게 합니다. 한 번도 필요한 적이 없었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만드는 처지라면 그것이 한 벌과 한 무더기를 가릅니다.

내보낸 PDF의 AES-256 암호는 충분히 강한가요 ?

약한 쪽은 암호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비밀번호입니다. AES-256은 PDF 형식이 제공하는 가장 강한 암호화이고 현실적으로 대입 공격으로 뚫리지 않지만, 여섯 글자 낱말은 뒤에 어떤 방식이 있든 추측됩니다. 긴 문장형 암호를 쓰고 파일과 다른 경로로 전하세요.

글자 인식은 어떤 언어를 읽을 수 있나요 ?

2.0 변경 내역은 기기 안 언어 선택을 갖춘 오프라인 글자 인식을 언급하지만 언어를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앱스토어에 보이는 44개 언어는 화면 표시를 뜻하지 인식 엔진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라틴 문자가 아닌 글자라면 앱 안의 선택 목록을 확인하세요.

Scan to PDF는 제 문서를 어딘가에 백업하나요 ?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바꾼 조건입니다. 서고는 Face ID 뒤 기기 안에 있고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으며 어떤 서버도 사본을 두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표시가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음인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기기가 서고를 가져간다는 뜻이기도 하니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내보내세요.

인용 형식: Lubor Šimůnek (2026). *Scan to PDF: Sign & Redact* 리뷰: 까맣게 칠한 글자를 정말로 지우는 스캐너. AppStoryo,

lapnito.cz s.r.o.. https://appstoryo.com/ko/apps/scan-to-pdf-review-2026
© 2026 lapnito.cz s.r.o.